

구약논단

제15권 2호(통권 32집) 2009년 6월 30일

천 사무엘(한남대)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 논의 연구	151
본 연구는 지난 60여 년 동안 토론되어 온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자들이 제시한 역사적 아브라함의 가능한 연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Cheon, Samuel A Study of Scholarly Views on the Historical Identity of Abraham	151
---	-----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 논의 연구¹⁾

천 사무엘 | 한남대

1. 들어가는 말

아브라함은 구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과 같은 종교들에서 신앙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전통은 매우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신명기 사가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 때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야훼 하나님에 의해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수 24: 2-3). 마태복음 기자도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계보를 그로부터 시작한다(마 1: 1). 이 밖에도 성서는 아브라함을 다양하게 묘사한다. 즉 “복의 근원”(창 12: 2), “군대의 통솔자”(창 14: 14-16), “의인”(창 15: 6), “여러 민족의 조상”(창 17: 4), “하나님의 친구”(사 41: 8; 대하 20: 7; 약 2: 23), “히브리 사람”(창 14: 13), “바빌로니아의 우르 사람”(창 11: 31), “지도자”(창 23: 6) 등이다. 또한 창 11장 27절 - 25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는 서부 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떠돌이로 그를 묘사한다.

성서의 아브라함 묘사에는 신앙적 혹은 전승사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즉 ‘역사적 아브라함’(historical Abraham)과는 다른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역사적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전승 과정에서 재구성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 역사적

1)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는 역사 비평 및 고고학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역사 비평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승사를 재구성하고, 이를 고고학 자료들과 연관시키면서 그의 본래 모습을 묘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 시터스(J. Van Seters)나 톰슨(T. L. Thompson)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되어, 역사적 아브라함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낳기도 했다.²⁾ 그리하여 전승사 비평, 문학 비평, 페미니스트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등의 관점에서 현재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려는 시도가 그 대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³⁾

본 논문은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지난 60여 년간 행해진 학자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역사적 아브라함의 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아브라함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역사성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지면의 제약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요 연구의 특징을 연대기 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원전 2000년대 초

아브라함을 2000년대 초 고대 근동의 대상(隊商; caravaneer) 혹은 호상(豪商; merchant-prince)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올브라이트(W. F. Albright)는 아브라함이 2000년대 초인 초기 청동기 시대 4기(EB IV)/중기 청동기 시대 1기(MB I)에 활동한 상인이었다고 주장했다.⁴⁾ 그에 의하면, 당시 가나안 지역은 반 유목민들이 지배했던 곳이

2) J.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T. L. Thompson, *The Historicity of the Patriarchal Narratives*, (Berlin: Walter de Gruyter, 1974).

3) C. Amos, *The Book of Genesis*, (Peterborough: Epworth Press, 2004), 73쪽; 페미니스트 비평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이며 잔인하며 인색한 면이 있다고 한다. 유 연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창 16:8),” 「구약논단」 제23집(2007), 113-114쪽; 이데올로기 비평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기부장으로 등장하며,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남성중심적-가부장적-히브리 민족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한다. 김 상래,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본 창 16장,” 「구약논단」 제23집(2007), 97쪽.

4) W. F. Albright,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London: Athlone Press, 1968), 47-95, 232-234쪽.

아니라, 정착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번성했던 대상 무역의 중심지였다. 또한 아브라함은 무역의 거점인 우르를 출발하여 대상들의 도시 하란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한 상인을 양자로 맞아들여 가나안 남부의 무역 도시들로 다녔다. 그가 거주했을 당시 네게브 지역은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의 통로였고, 대상들의 거점들을 연결하는 연락망이 갖추어져 있었다. 올브라이트는 특히 창 14장의 전쟁 이야기를 요단강 동쪽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히브리 사람(창 14: 13)은 '하피루'(Hapiru)인데, 이것은 '대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올브라이트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기원전 2000-1600년경의 고대 근동 문서에 나오는 유목민 아모리 족(Amorite)들의 이주와 연관시켰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집트로 이주한 아모리 족의 부족 지도자라고 주장했다.⁵⁾

올브라이트는 요단강 동편지역과 네게브 지역을 탐사한 고고학자 글뤽(N. Glueck)의 주장에 크게 의존했다. 글뤽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대한 탐사를 통해, 중기 청동기 시대 1기에 번성했던 이 지역이 그 후 수세기 동안 황폐화되었는데, 이것은 창 14장의 전쟁을 이 시대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⁶⁾ 또한 그는 네게브 지역의 탐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중기 청동기 시대 1기는 아브라함 시대라고 결론했다.⁷⁾

아브라함이 중기 청동기 시대 1기 유목민 아모리 족의 상인이었다는 올브라이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⁸⁾ 예를 들면, 초기 청동기 시대 4기/중기 청동기 시대 1기는 기원전 1900년보다 더 후대일 수 없고, 이 시대에 가나안 지역이나 네게브 지역에 대상들의 거점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 가나안 지역의 문화는 올브라이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약했다는 것이다. 또한 창 14장의 전쟁

5) 아모리 족 가설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 중호, 「이스라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6-38쪽을 보라.

6) N. Glueck, "Explorations in Eastern Palestine I-IV," *AASOR* 14-15, 18-19, 25-28 (1934, 1935, 1939, 1951).

7) N. Glueck, "The Age of Abraham in the Negev," *BA* 18 (1955), 2-9쪽.

8) T. L. Thompson, *윗글*, 174, 320쪽; D. J. Wiseman, "Abraham Reassessed," A. R. Millard/D. J. Wiseman (eds.), *Essays on the Patriarchal Narratives*.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142쪽; J. M. Miller, "이스라엘 역사," D. Knight/G. Tucker (eds.), 「히브리 성서와 현대의 해석자들」(박 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33-35쪽.

이야기나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도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⁹⁾ 결국 올브라이트의 주장은 고대 근동 문서들의 내용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 문서들과 창세기의 내용적 유사성을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기원전 19-16세기

올브라이트의 견해를 비판한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의 시대를 중기 청동기 시대 2기(MB II), 즉 기원전 19-16세기로 추정했다.¹⁰⁾ 예를 들면, 드보(R. de Vaux)는 족장들의 가나안 이주를 아모리 족의 두 번째 대 이동과 연관시키면서, 19세기 그들의 유입은 중기 청동기 시대 2기 가나안 도시들의 부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¹¹⁾ 그가 아모리 족 가설을 받아들이면서 중기 청동기 시대 2기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창세기의 내용이 성명학적(onomastic), 언어학적, 사회학적으로 이 시기와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세기에서 족장들은 도시 주변에서 이동하는 목축업자들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중기 청동기 시대 2기(MB II) 마리(Mari) 문서에 언급된 아모리 족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기 청동기 시대(EB)와 중기 청동기 시대(MB) 사이에 도시 근처에서 평화롭게 장막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키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도시 주변에 거주하면서 목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보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의 시대를 폭넓게 자리 매김 했지만, 그 시대의 시작과 끝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브라이트(J. Bright)도 족장들의 이야기(창 12-50장)가 기원전 20-16세기경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가장 잘 부합된다고 주장했다.¹²⁾ 그에 의하면, 족장들은 오늘날 베두인과 같은 유목민이 아니라 반 유목 생활을

9) 천 사무엘, 「성서주석 1: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14-216쪽.

10) W. G. Dever/W. M. Clark, "Palestine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The Archaeological Picture," J. H. Hayes/J. M. Miller (eds.), *Israelite and Judaeon History*, (London: SCM Press, 1977), 96쪽; P. K. McCarter, Jr.,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H. Shanks (ed.), 「고대 이스라엘」 (김 유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39쪽;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0), 224-226쪽.

11) R. de Vaux, *The Early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265-266쪽.

12) J. Bright, 「이스라엘의 역사」 상권, (김 윤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78), 108-138쪽.

하는 목축업자들이었는데, 상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쪽으로 이주한 부족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반 유목민들과 혈연적 친밀감이 있었고, 아람 족들과 같은 종족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또한 족장들은 외톨이로 떠돌던 개별적 인물들이 아니라, 상당히 큰 씨족 집단을 이끌었던 가족 공동체의 지도자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아람 사람들”(신 26: 5)이라는 성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아브라함을 중기 청동기 시대 2기 목축업자로 여기려는 드보나 브라이트의 견해는 비판을 받았다.¹³⁾ 그것은 올브라이트의 견해를 반박할 때처럼 주로 연구 방법론에 집중되었다. 즉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연대 착오적인 내용이나 후대의 전승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했고, 고대 근동 문서와 성서의 유사성만 과장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의 시대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⁴⁾

4. 아마르나 시대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원전 15-14세기 아마르나(Amarna) 시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⁵⁾ 이것은 족장들의 시대적 배경을 후기 청동기 시대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소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기원전 15-13세기 누지 문서와 우가릿 문서에 나오는 관습법들이 창세기의 그것들과 유사하다는 데 그 근거를 두었다.

예를 들면, 고든(C. H. Gordon)은 기원전 13세기 우가릿 문서에서 언급하는 우라(Ura)라는 도시의 히타이트 상인들을 족장들과 연관시키면서, 아브라함이 반 유목민이나 목자가 아니라 여행하는 상인이라고 주장했다.¹⁶⁾ 그는 이 고대 문서에 나오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 우라가 아브라함의 출생지 갈대아 우르(Ur of the Chaldees)이고,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녔던 목자가 아니라 히타이트 지역에서 활동했던 상인이

13) T. L. Thompson, ʻ릿글; J. Van Seters, ʻ릿글.

14) W. S. LaSor 외, 「구약개관」 (박 철현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61-170쪽.

15) T. L. Thompson, ʻ릿글, 321-324쪽.

16) C. H. Gordon, "Abraham and the Merchants of Ura," *JNES* 17 (1958), 28-31쪽.

라고 생각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를 우가릿 문서의 히타이트 상인이 우가릿에서 땅을 구입하지 못한 이야기와 연관시키면서, 전자는 히타이트 법을 반영하며, 아브라함은 히타이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고든은 아브라함을 히타이트 사람들의 지원 하에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이집트에 은을 팔고 히타이트에 금을 파는 부유한 무역상으로 묘사했다.

고든(C. H. Gordon)에 의하면, 이집트의 종살이가 4세대 동안 지속되었고(창 15: 16), 야곱과 가나안 정복 사이에 다섯 세대가 흘렀다(출 6: 16-20; 수 7: 1)는 것은, 야곱이 기원전 14세기 중반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아마르나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그는 이러한 내용이 기원전 15세기 누지 문서에 나타나 있는 후리 족의 관습법 등 고대 근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지 문서에 의하면, 아이가 없던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유산의 소유권은 첩을 통해 얻은 아이에게 속하지 않고 본 부인의 아이에게 상속된다. 또한 상속자를 낳지 못한 부인은 남편에게 첩을 얻어 주어 상속자를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습법은 사라와 하갈 이야기(창 16: 1-16; 21: 1-23)와 연관시킬 수 있다. 또한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야기(창 12: 10-20; 20: 1-18)는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실제적인 혈연 관계에 상관없이 남편의 누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후리 족의 관습을 반영한다고 보았다.¹⁸⁾ 이러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 고든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14세기-13세기 히타이트나 우가릿의 상인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스펠트(O. Eissfeldt)도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정착 시기가 단지 4세대뿐임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을 포함하는 족장 시대는 가나안 정착보다 2세기 정도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⁹⁾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할 경우 족장 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후반부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14세기경에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C. H. Gordon, "The Patriarchal Age," *JBR* 21 (1953), 238-243쪽.

18) 창세기의 내용과 누지 문서의 유사성은 스페이저의 주석에 잘 반영되어 있다. E. A. Speiser, *Genesis* (Garden City, N. Y.: Doubleday, 1982).

19) O. Eissfeldt, "Palestine in the Time of the Nineteenth Dynasty. (a) The Exodus and Wanderings," *CAH* 2/2 (1975), 312-314쪽.

아브라함 등 족장들의 시대를 후기 청동기 시대(LB)로 보려는 시도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²⁰⁾ 고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를 동일시하거나 막벨라 굴 이야기가 히타이트 법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²¹⁾ 특히 누지 문서를 아브라함 이야기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왜곡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누지 문서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창세기 이야기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불과 2-3개에 불과하다고 반박되었다. 이것은 누지 문서가 족장 시대의 관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뿐,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기원전 10세기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철기 시대 1기(기원전 1200-1000년)와 부합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마자르(B. Mazar)는 세겜과 헤브론 사이의 중앙 산악 지역에서 족장들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은 철기 시대 1기 초기 이스라엘의 정착과 지리적으로 잘 부합된다고 주장했다.²²⁾ 마자르와 유사하게 맥카터(P. K. McCarter, Jr.)도 아브라함을 초기 철기 시대 1기의 역사적 상황에 놓으면서, 북부와 남부의 주요 지역에 제단을 세운 사람으로 묘사했다.²³⁾ 즉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세겜, 벤텔, 아이, 헤브론, 모리아 산, 그리고 브엘세바 등에 있는 제단을 세운 인물로 묘사하는데, 이 제단들은 철기 시대 1기 이스라엘의 주거지 경계 안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맥카터는 아브라함을 남부와 북부 지파들을 통합하고, 사회적, 종교적 정체성을 세운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²⁴⁾

최근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유다 지역에서는 기원전 8세기 후반까지

20) T. L. Thompson, *윗글*, 322-323쪽.

21) G. M. Tucker, "The Legal Background of Genesis 23," *JBL* 85 (1966), 77-84쪽; T. L. Thompson, *윗글*, 172쪽.

22) B. Maza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enesis," S. Ahituv/B. A. Levine(eds.), *The Early Biblical Period: Historical Studie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6), 49-62쪽.

23) P. K. McCarter, Jr., *윗글*, 60-61쪽.

24) I. Finkelstein/N. 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324-325쪽.

매우 드물게 사람들이 거주했고, 예루살렘도 기원전 10세기에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으며, 기원전 8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족장들의 이야기는 왕조 시대 후기, 즉 기원전 7세기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반박은 결국 아브라함의 연대를 철기 시대 이후로 놓는 것인데, 이럴 경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정착이나 통일 왕국 시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중기 청동기 시대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역사 비평학적 연구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져 하나의 문서로 처음 아브라함을 제시한 것은 기원전 10세기 다윗-솔로몬 시대 야훼스트(Yahwist), 즉 J기자에 의해서라고 주장했다.²⁵⁾ 예를 들면, 폰 라드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의 설화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대 착오적인 기록이고, 역사 서술이라고 여기기 어렵다고 한다.²⁶⁾ 그리하여 그는 소위 “역사적 아브라함”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원전 10세기에 만들어진 ‘신학적 아브라함’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 역사 비평학에서 제시하는 J기자의 아브라함을 살펴본다.

역사 비평에 의하면, J기자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중재자로 묘사한다.²⁷⁾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고향을 떠난다(창 12: 1-3).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다.²⁸⁾ 이 약속은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반복된다(창 12: 7; 13: 14-17; 15장; 16: 10; 18: 18; 21: 13; 22: 15-18; 24: 7).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다(창 12: 7).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처한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25) G. von Ra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26)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 Row, 1962), 165쪽 이하.

27) N. Habel, *Literary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52-57쪽.

28) 이 약속은 일곱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천 사무엘, 윗글, 194-196를 보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가나안에 돌아 온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련을 당하는데, 조카 롯과의 불화이다. 그들은 결국 서로 헤어져, 롯은 동쪽인 요단 들만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15장의 언약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 언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J기자의 신학적인 견해가 표현된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창 15: 6).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사나 희생 제물이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것만이 요청된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고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고대 계약 의식을 따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창 15: 18)고 다시 약속하는데, 이것은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 지배권의 크기와, 약속의 결과로서의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함을 의미한다.

이 언약 뒤에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창 16: 4-14).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창 16: 10).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사라의 불신과 웃음이다(창 18: 1-15).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편에서 보았을 때 약속의 실현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말해 준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독백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창 18: 17-19),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례는 소돔을 위한 중재 기도에서 곧 바로 나온다(창 18: 22-33).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재 노력은 의인을 찾지 못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 불가

29) G. von Rad, 윗글, 129쪽.

능한 상황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처음 실현된 것이다. 이것은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요, 은혜의 선물이며, 희망의 씨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약속을 통한 구원이라는 J기자의 신학을 잘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역사 비평학은 J기자의 아브라함이 약속의 중재자로 묘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 기원전 10세기 J기자가 존재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 시터스(J. Van Seters)는 J기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를 바빌론 포로 시대의 인물로 여기면서, P기자를 포로 시대 이후의 인물로 제시했다.³⁰⁾ 그는 J기자의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왕조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창 12: 1-3; 15장; 21: 8ff.; 22: 15-17; 24장; 26: 26ff), 이것은 다윗-솔로몬 시대 왕조의 합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 포로 시대에 왕조 이데올로기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³¹⁾ 톰슨처럼 반 시터스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역사 기록이 아니라 비역사적인 이야기이며, 대부분 포로 시대에 창작된 경건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유럽 학자들은 오경의 편집은 제사장 문서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족장 전승과 모세 전승이 나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J기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했다.³²⁾ 이러한 주장들은 아브라함 본문과 전승에 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하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 문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³³⁾

30) J. Van Seters, 윗글, 310쪽; *Prologue to History: The Yahwist as Historian in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332쪽; "Abraham," *Encyclopedia of Religion*, M. Eliade (ed.), (London: Macmillan, 1987), 13쪽.

31) J. Van Seters, 윗글(1992), 270쪽.

32) T. B. Dozeman/K.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폰 라트의 J기자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는 렌도르프(R. Rendtorff)의 주장을 발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렌도르프는 J기자나 E기자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짜임새 있는 이야기는 제사장 문서나 신명기 문서 편집자들이 등장할 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 Rendtorff, "The 'Yahwist' as Theologian? The Dilemma of Pentateuchal Criticism," *JSOT* 3 (1977), 2-10쪽;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Sheffield: JSOT Press, 1990). 렌도르프에 대한 비판은 R. N. Whybray,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Sheffield: JSOT Press, 1987), 98-105쪽을 보라.

33) 아브라함 이야기는 E 문서도 들어있지만(창 20:1-18; 21:6-32, 34; 22:1-19 등), J 문서와 P 문서 비해 단편적이고 기본적으로 J 문서의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6. 기원전 6세기

전통적인 역사 비평적 견해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최종 형태로서의 창세기 본문이 제시하는 아브라함은 P기자의 의해서 창작된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P기자의 연대가 바빌론 포로 시대인지 혹은 그 이후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P기자의 아브라함 재구성의 특성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원전 6세기로 놓기로 한다.³⁴⁾ J기자의 신학화된 아브라함 이야기는 제사장 계열의 저자인 P기자에 의해서 재 신학화되었다.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재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신학과 제의 그리고 역사를 포함시켰다.³⁵⁾

그 실례를 들자면,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엘 샤다이(El Shaddai)다(창 17:1).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타나셨고(출 6: 2-3), 족장들에게는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만 나타나셨다는 P기자의 사고 때문이다. 둘째로, P기자는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었다(창 17: 5, 15). 이것은 계약의 결과이자 약속의 증거로 제시된 것이었다. 셋째로, P기자는 아브라함 계약의 증표로 할례를 포함시켰다. 노아 계약에서 무지개가 약속의 증표인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 계약에서 약속의 증표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할례는 계약 공동체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표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넷째로, P기자는 막벨라 굴의 구입 이야기를 포함시킴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섯째로, P기자는 시간의 진행 과정을 나이 혹은 머문 기간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창 12: 4b; 16: 3b, 16; 21: 4-5).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로, P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후손의 약속에 영원한 계약의 특성을 부여했다(창 17장).³⁶⁾

34) S. McEvenue, *Interpreting the Pentateuch*,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0), 116쪽; R. B. Coote/D. R. Ord,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39쪽. P기자의 연대와 장소에 대한 논의는 장 일선,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237-240쪽을 참조하라.

35) J. Van Seters, *윗글*(1987), 15쪽; N. Habel, *윗글*, 71-74쪽.

36) R. Clement, *Abraham and David: Genesis XV and Its Meaning for Israelite Tradition*,

이것은 약속의 성취에 대해 인간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것이다.

P기자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을 즉시 실행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자 완전한 사람이었다(창 17: 1, 23). 이러한 그의 모습을 P기자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구성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계약 조건이 제시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 공동체가 인종적 혹은 정치적 사회가 아니라, 예식에 참여함으로 결정되는 종교적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⁷⁾ 또한 P기자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체결한 계약은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희망을 갖게 했다.³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율법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계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함으로 더욱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P기자가 구성한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은 바빌론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여행한 사람이었다. 즉 P기자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먼 여행을 한 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를 떠나 상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어느 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살 곳을 찾아 세겟, 네겟, 베델, 헤브론의 마므레, 브엘세바 등을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여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약속을 믿었다.

이와 같은 P기자의 여행하는 아브라함은 바빌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

(Naperville, Ill.: Allenson, 1967), 71-78; 장일선, *윳글*, 267쪽; R. J. Bautch, "An Appraisal of Abraham's Role in Postexilic Covenants," *CBQ* 71 (2009), 43-44쪽.

37) S. McEvenue, *윳글*, 124쪽.

38) C.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256, 271쪽; D. N. Freedman/D. Miano, "People of the New Covenant," *The Concept of the Covenant in the Second Temple Period*, S. Porter/J. C. R. De Roo (eds.), (Leiden: Brill, 2003), 10-11쪽. 프리드만과 미아노는, 시내산 계약의 조건들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데 사용되었다면, 아브라함 계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계약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빌론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귀향하도록 격려하는, 새 출애굽의 모범으로 제시되었다.³⁹⁾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부자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창 12: 10-20), 아브라함의 후손이 압제를 받고 종이 될 것이라는 언급(창 15: 13-14), 그리고 이집트 여인 하갈과의 갈등 이야기 등은 바빌론 포로 시대 편집자가 전통적인 출애굽 모티브와 연관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재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빌론 포로 시대에 유대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이와 같은 P기자의 아브라함은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P문서가 바빌론 포로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편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P의 아브라함이 위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로, P문서가 제시하는 아브라함이 바빌론 포로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창작된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로 시기 이전 예언자들이나 신명기 역사서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⁴²⁾ 이것은 소위 “역사적 아브라함”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갈데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역사성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오경 이외에 나와 있는 바빌론 포로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아브라함 전승을 P기자의 것과 면밀하게 비교하여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맺는 말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이것이 난제가 된 결정적 요인은 아브라함의 역사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

39) C. Amos, *릿글*, 144쪽.

40) P기자의 교차 대구 형태의 아브라함 이야기 편집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I. M. Kikawada/A. Quinn, *Before Abraham Wa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9), 96쪽; G. A. Rendsburg,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28-29쪽; 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56-57쪽.

41) J. Van Seters, *릿글*(1992), 332쪽.

42) G.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182쪽.

을 줄 수 있는 성서 이외의 고대 기록이나 전승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이나 관습 등이 고고학을 통하여 발견된 고대 근동의 것들과 유사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들은 기원전 2000년대의 기억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 그 이상을 하기 어렵게 한다. 그리하여 역사적 아브라함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역사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후대의 전승을 포함하여 재구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역사적 정체성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론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다른 한편, 역사적 아브라함 연구의 기본이 되는 창세기 본문 연구를 위해 J기자나 P기자의 아브라함 본문 연구 및 이들과 오경 이외의 아브라함 전승과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J기자나 P기자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제시되는 아브라함 전승의 역사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J기자나 P기자의 연대를 최근 제시되는 주장에 따라 전통적인 견해보다 더 후대로 여길 경우, 전승의 사용 순서나 그들이 묘사하는 아브라함의 역사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는 창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른 본문의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 참고문헌

- 김 상래, “이테올로기 비평으로 본 창 16장,” 「구약논단」 제 23집(2007), 76-100쪽.
 유 연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창 16:8),” 「구약논단」 제23집(2007), 101-117쪽.
 장 일선,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정 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천 사무엘, 「성서주석 1: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Ahlström, G. W.,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Albright, W. F.,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London: Athlone Press, 1968).
 Amos, C., *The Book of Genesis*, (Peterborough: Epworth Press, 2004).
 Bautch, R. J., “An Appraisal of Abraham’s Role in Postexilic Covenants,” *CBQ* 71 (2009), 42-63쪽.
 Bright, J., 「이스라엘의 역사 상권」 (김 운주 옮김), (웨관: 분도출판사, 1978).
 Clement, R., *Abraham and David: Genesis XV and Its Meaning for Israelite Tradition*, (Naperville, Ill.: Allenson, 1967).

- Coote, R. B./D. R. Ord, *The Bible's First History: From Eden to the Court of David with the Yahwis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_____,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Dever, W. G./W. M. Clark, "Palestine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The Archaeological Picture," J. H. Hayes/J. M. Miller(eds.), *Israelite and Judaeon History*, (London: SCM Press, 1977), 70-148쪽.
- Dorsey, 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Dozeman, T. B./K.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 Eissfeldt, O., "Palestine in the Time of the Nineteenth Dynasty. (a) The Exodus and Wanderings," *CAH* 2/2 (1975), 312-314쪽.
- Finkelstein I./N. 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 Freedman, D. N./D. Miano, "People of the New Covenant," S. Porter/ J. C. R. De Roo (eds.), *The Concept of the Covenant in the Second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 7-26쪽.
- Glueck, N., "Explorations in Eastern Palestine I-IV," *AASOR* 14-15, 18-19, 25-28 (1934, 1935, 1939, 1951).
- _____, "The Age of Abraham in the Negev," *BA* 18 (1955), 2-9쪽.
- Gordon, C. H., "Abraham and the Merchants of Ura," *JNES* 17 (1958), 28-31쪽.
- _____, "The Patriarchal Age," *JBR* 21 (1953), 238-243쪽.
- Habel, N., *Literary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 Kikawada, I. M./A. Quinn, *Before Abraham Wa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9).
- LaSor, W. S., 외, 「구약개관」 (박 칠현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Mazar, A.,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0).
- Mazar, B.,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enesis," S. Ahituv/B. A. Levine (eds.), *The Early Biblical Period: Historical Studie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6), 49-62쪽.
- McCarter, Jr., P. K.,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H. Shanks (ed.), 「고대 이스라엘」 (김 유리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9-72쪽.
- McEvenue, S., *Interpreting the Pentateuch*,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0).
- Miller, J. M., "이스라엘 역사," D. Knight/G. Tucker (eds.), 「히브리 성서와 현대의 해석자들」 (박 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23-55쪽.
- Rad, G. vo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 _____,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 Row, 1962).
- Rendsburg, G. A.,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 Rendtorff, R., "The 'Yahwist' as Theologian? The Dilemma of Pentateuchal Criticism,"

- JSOT* 3 (1977), 2-10쪽.
- _____,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Sheffield: JSOT Press, 1990).
- Seters, J. Van,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 _____, *Prologue to History: The Yahwist as Historian in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_____, "Abraham," *Encyclopedia of Religion*, M. Eliade (ed.), (London: Macmillan, 1987), 13-17쪽.
- Speiser, E. A., *Genesis*, (Garden City, N. Y.: Doubleday, 1982).
- Thompson, T. L., *The Historicity of the Patriarchal Narratives*, (Berlin: Walter de Gruyter, 1974).
- Tucker, G. M., "The Legal Background of Genesis 23," *JBL* 85 (1966), 77-84쪽.
- Vaux, R. de, *The Early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 Westermann, C.,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 Wiseman, D. J., "Abraham Reassessed," A. R. Millard and D. J. Wiseman, (eds.), *Essays on the Patriarchal Narratives*,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141-160쪽.
- Whybray, R. N.,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Sheffield: JSOT Press, 1987).

검색어

아브라함 • 창세기 • J기자 • P기자 • 족장시대

투고일: 2009년 5월 1일

심사일: 200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5일

A Study of Scholarly Views on the Historical Identity of Abraham

Samuel Cheon,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Abraham's historical identity presented by recent scholars who have studied his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through archaeology and historical criticism. To do so, it critically reviews their presentations which have been discussed for the last 60 years. First of all, in the perspective of Palestine archaeology, Abraham was placed in the early second millenium, B.C.E. by W. F. Albright and N. Glueck, in the 19th-16th century B.C.E. by R. de Vaux and J. Bright, in the period of Amarna (15th-14th century B.C.E.) by C. H. Gordon and O. Eissfeldt, or in the early Iron Age (1200-1000 B.C.E.) by B. Mazar and P. K. McCarter, Jr. However, their views were criticized by T. L. Thompson and J. Van Seters, who argued that Abraham's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included anachronism such as Philistines and camels, and later traditions. It means that 'historical Abraham' cannot be reconstructed by archaeological data.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criticism, Yahwist's Abraham was presented as the intermediary of promise, but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J was in the 10th century B.C.E. or exilic period. Priestly

writer's Abraham was also presented as a model of the faithful or righteous in the exilic or post-exilic Jewish community, but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P was in the Babylonian Period or Persian.

In spite of these previous studies, the historicity of Abraham still remains unsolv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ny Abraham as a historical figure. Abraham presented by J or P should be also reconsidered with each writer's socio-historical situation, which needs a study of Abraham described in other Pentateuchal books and prophetic ones. It means that the study of Abraham is related with other texts in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the story of Abraham in the Book of Genesis.

Keywords

Abraham
The Book of Genesis
Yahwist
Priestly writer
Patriarchal period